

출판계 움직임

한국도서유통협의회 임원개선

한국도서유통협의회는 지난 3월 11일 제12차 정기총회에서 88년도 회장에 許昌成씨(평화출판사 대표)를 선출하는 한편, ①도서유통질서의 확립 ②대형도매기구 설립 촉구 ③一面一書店운동 및 서점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요청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88년도 임원은 다음과 같다.

▲ 명예회장 윤형두(범우사) ▲ 부회장 전병석(문예출판사) 이기웅(열화당) ▲ 총무담당 상임이사 김인중(남도출판사) ▲ 기획담당 유제동(교문사) ▲ 홍보담당 조상호(나남) ▲ 조직담당 강희실(다산출판사)

思维會서 입학장학금 전달

국내 원로·중진 출판인들의 모임인 思维會는 지난 3월 18일 우리나라 유일의 출판학과 정규교육기관인 충남 홍성 소재 혜전전문대학 출판과에 88학년도 입학장학금 5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은 사간회의 金源大 회장과 崔德教 운영위원장인 金亨德 학장을 직접 방문, 전달했다.

20년 이상 출판업을 경영한 전·현역 출판인을 회원으로 하는 思维會는 그동안 회원들의 찬조금으로 기금을 마련, 회원간의 경조사를 도와 왔는데, 올해부터는 출판계의 후진을 돕는 장학금도 운영기로 했다.

'한국전자출판연구회' 창립

전자출판에 관한 정보교환과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전자출판연구회'가 지난 3월 3일 창립됐다.

연구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김병희(담출판사 대표) ▲ 부회장 최인수(월간「하이테크」 발행인) ▲ 감사 노양환(우신사 대표) ▲ 총무이사 김중수(한울 대표) ▲ 사업이사 이기성(장왕교재연구원 상무) ▲ 홍보이사 김희락(한국출판연구소 사무국장)

교학사, 11종 합격으로 수위

중학교 2종 교과서 검정결과 밝혀져

89학년도부터 사용될 중학교 2종 교과서 검정합격자가 3월 11일 밝혀졌다.

영어·수학·과학·체육·한문·서예·음악·미술·사회부도 등 9개 과목에 걸쳐 실시된 이번 검정에서는 교학사가 6개 과목에 11종이 합격, 수위를 차지했으며, 동아출판사가 5개 과목에 8종, 지학사가 6개 과목에 7종, 금성교과서가 6개 과목에 6종을 합격시켜 이들

4개사가 전체 합격종수(45종)의 71%인 32종을 휩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정에서도 역시 규모가 큰 출판사들이 저력을 발휘해 교과서의 독과점현상을 보였는데, 특히 비중이 가장 큰 영어·수학의 경우 교학사가 각 2종씩, 지학사가 영어 1종, 수학 2종을 합격시킨 반면 금성교과서는 두 과목 모두 탈락했다. 한편 시사영어사의 영어과목 탈락은 '이번'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1월말에 마감된 이번 검정 출원에는 모두 65개사에서 264종을 신청, 평균 5.8대 1의 경쟁율을 보였다.

각 출판사별 합격과목 및 종수는 다음과 같다. (계열회사 포함)

▲ 교학사=영어(2종), 수학(2종), 사회(2종), 과학(2종), 미술(2종), 한문

▲ 동아출판사=수학, 과학, 한문, 체육(2종), 서예(3종)

▲ 지학사=영어, 수학(2종), 과학, 음악, 미술, 서예

▲ 금성교과서=과학, 음악, 미술, 한문, 체육, 사회

▲ 양영각=한문, 서예, 체육

▲ 평화출판사=한문 ▲ 태림출판사=영어 ▲ 민족문고=영어 ▲ 삼화

서적=사회 ▲ 보진출판사=사회

▲ 현대음악=음악 ▲ 세광음악출판사=음악 ▲ 시사영어사=음악 ▲ 고려서적=미술 ▲ 예지각=체육

잡지계의 원로 金命燁씨 타계

1954년 고金益達 學園社사장과 함께 여성 월간종합지 「女苑」을 창간, 1970년까지 주식회사 女苑社를 이끌어온 金命燁사장이 지난 3월 15일 숙환으로 경기도 고양군 원당면 자택에서 타계했다. 향년 72세.

「女苑」은 6.25동란 직후 어저러

30%, 실습 70%, 교정반은 이론 10%, 실습 90%로 실무 위주의 교육이 실시된다. 수강료는 각각 7만원, 6만원.

동 학원의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가 455-1(전화 672-1841, 633-1881~2).

'눈으로 보는 한국책의 역사展'

한국출판판매주식회사(종로구 서린동·대표 여승구)는 창립 25주년 기념으로 '눈으로 보는 한국책의 역사전'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달동안 개최한다.

동사가 마련한 제7회 '서울 북페어'의 특별전으로 열리는 이 전시회에는 고려시대부터 8·15해방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서적 611권이 전시된다. 여기에는 목판본·목활자본·금속활자본·연활자본·석판본·필사본 등이 고루 출품되며, 이밖에 각종 고지도·좁쌀책·책판·죽간·고찰자 등 인쇄관련 자료들도 선보이게 된다.(문의는 735-5401~4)

'교보문고' 사무실 이전

주식회사 교보문고(대표이사 신동재)가 종래 교보빌딩 6층에 있던 사무실을 종로구청 앞 진학회관 3층~5층으로 3월 20일 이전했다.

주소(종로구 종로1가 1)와 전화번호(730-7891)는 종전과 같다.

'상서각' 사무실 옮겨

도서출판 尙書閣(대표 류승조)이 은평구 역촌동 16의2로 사무실을 옮겼다. 새 전화는 사장실 765-4076, 편집부 389-2008, 영업부 356-5353, 385-8484.

주신원씨 등 3명에 '공로상'

出協 창립41돌 맞아 유공자 표창



3월 15일 출협 강당에서 베풀어진 出協 창립 41주년 기념식. 이 자리에서는 출판유공자와 관련업계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창립 41주년 기념식이 지난 3월 15일 오전 11시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베풀어졌다.

정진숙 명예회장, 임인규 고문을 비롯한 100여명의 출판인들과 관련업계 인사들이 모인 이날 기념식에서, 權炳奎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출판계는 지금 전환기적 상황에 직면, 내외의 도전을 지혜롭게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고 말하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새 기술의 수용, 출판물 유통체계의 정비, 국제표준도서번호제의 시행, 독서환경의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출협이 연례적으로 시상하는 한국출판공로상 포상, 관련업계 유공자 표창, 감사패 증정 등이 있었다.

◇ 제19회 한국출판공로상

▲ 기획·편집부문=朱信源(54·

한림출판사 부사장) ▲ 영업부문=成慶煥(59·대한기독교서회 영업부장) ▲ 관리부문=鄭重模(59·중앙교육진흥연구소 제작국장)

◇ 관련업계 출판유공자

▲ 인쇄부문=閔在基(정문사문화 대표이사) 郭得龍(삼문정밀인쇄 대표이사) ▲ 제본부문=梁京昌(경신제책사 대표) ▲ 서적상부문=金鍾聲(신촌문고 대표) 崔貞憲(연세대구내서점 대표) 金淳培(인천 서진 대표) 金輝龍(영주 스텔서점 대표) 金小振(인천 신진문화사 대표)

◇ 감사패 증정=曹良旭(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李翼培(한국출판경영협의회 사무국장) 李恒周(한국도서유통협의회 사무국장) 黃萬慶(한국기독교출판협의회 사무국장)

◇ 출협 사무국 장기근속 직원 표창=權世賢(관리부 간사)



웠던 사회적 환경에서 여성계의 교양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했었다. 고인은 62년 이래 출협 상무이사, 이사직을 맡았고, 잡지협회 3·4대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金淑經여사와 1남3녀(장남 弘培군은 在美)가 있다.

'편집디자인' 전문학원 개원

편집디자인요원을 전문으로 양성하는 서울편집디자인학원(대표 이운희)이 새로 문을 열었다.

사보·잡지 등 각종 간행물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수요가 급증한 편집전문 인력을 양성코자 당국의 인가를 받아 개원한 이 학원은 오는 4월 1일 개강을 목표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대상은 편집디자인반(6개월)에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자, 편집교정반(4개월)에 고졸 이상자인데, 디자인반은 이론